

이성선 『몸은 지상에 묶여도』의 인지시학적 연구

박지학(전주교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현실적 존재로의 회귀와 화해의
인지체계 |
| 2. 세계에 대한 한계 인식과 이상
지향의 인지체계 | 4. 결론 |

1. 서론

이성선(1941~2001)은 1970년 『문화비평』에 「시인의 병풍」의 4편을 발표하여 등단하였다. 이후 1972년 『시문학』에 재추천을 받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74년 『시인의 병풍』을 간행한 이후 2001년 작고하기까지 13권의 시집¹⁾을 상재하였다.

그동안 그의 시는 대체로 ‘자연’이나 ‘전통적 서정의 계승’, 그리고 불교·노장의 ‘동양적 전통’ 등에서 조명되었다. 이성선의 시를 ‘전통적 서정의 계승’이란 측면에서 논의한 논자들은 이성선의 시가 내용과 형식, 의식과

1) 『하늘문을 두드리며』(1977), 『몸은 지상에 묶여도』(1979), 『밧줄』(1982),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1985), 『별이 비치는 지붕』(1987), 『별까지 가면 된다』(1988), 『새벽 꽃향기』(1989), 『향기나는 밤』(1991), 『절정의 노래』(1991), 『벌레 시인』(1994), 『산시』(1999),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2000).

기법에 걸쳐 두루 보수적인 경향을 드러내며, 우리 시의 전통을 변혁시키기보다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논하였다.²⁾ 또한 그의 시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노래하고³⁾ 신성한 우주적 질서를 탐색한 시⁴⁾로 평하였다. 이성선의 시를 불교·노장의 동양적 전통으로 해석한 논의에서는 이성선 시의 궁극적 지향점이 내세, 즉 하늘에 있음으로 파악한다. 이는 이성선의 시가 혼탁한 현실세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에 이르려는 구도자적 엄결성 세계(해탈)를 지향했다는 것이다.⁵⁾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지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몸은 지상에 묶여도」의 구조적 미학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는 시적 자아가 세계 내에서 인지한 공간을 규명하여 의미 구조를 도출해냄으로써 창조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는 이성선의 13권의 시집 중 두 번째 시집으로 초기 시에 해당한다. 이성선 시에서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정서는 끊임없는 존재에 대한 탐구이다. 이것은 시적 자아가 놓여 있는 현실공간과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공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에 대한 존재 탐구이다. 이때 이성선의 시에서 현실 공간은 지상의 시어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이상 공간은 천상의 시어로 나타난다. 현실 공간이 벌레, 꽃, 동물 등으로 표현된다면, 이상 공간은 하늘, 별, 달 등으로 표출된다.

세계 인식에 대한 혼란으로 이상을 지향하고, 다시 세계 내에서 존재를 깨닫는 순환 과정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으로 존재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초기에서 중기 이후까지 이성선 시는 존재 탐구의 순환

2) 김재홍, 「가치의 다원화와 열림 지향성」, 『소설문학』, 1987.12.

이승훈, 「70년대의 한국시」, 『현대문학』, 1989. 3.

3) 이광호, 「투영의 시학」, 『현대시학』, 1990. 4.

4) 전도현, 「자연친화적 상상력과 구도의 정신」, 『시와사람』, 시와사람사, 2000. 봄.

5) 박남희, 「노장적 사유의 두 가지 모습 : 천상병과 이성선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7호, 한국시학회, 2002.

과정으로 나타난다. 존재의 순환은 후기시로 갈수록 천상을 벗어나 우주를 지향한다. 이때 그의 시에서 인식된 존재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존재로 나타난다. 그래서 평자들은 이를 구도자적 염결성의 세계로 표현한다. 이러한 이성선 시를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이 집약되어 있는 시가 「몸은 지상에 묶여도」이다.

레이코프와 터너는 은유가 단순한 수사의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의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은유를 하나의 인지 대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과는 완전히 상이한 개념적 영역으로부터 받아들인 구조를 활용한다. 이와 같은 은유 작용에서 이들은 이해하려는 대상을 목표 영역(target domain)으로, 대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끌어들이는 영역을 근원 영역(source domain)으로 지칭한다. 예컨대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은유는 ‘인생’이라는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여행’이라는 개념적 영역을 개입 시킨 근원 영역이다.

여행에 대한 우리의 지식구조는 여행자, 출발지점, 경로, 장애 등과 같이 세분화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의미론적 은유이론에서는 이처럼 경험적으로 형성된 지식구조가 ‘인생’의 개념에 사상(寫像-mapping)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개념은유에서 인생과 여행은 개념적 사상 관계에 놓인다. 즉 개념적 사상 관계에 놓인 ‘인생’과 ‘여행’은 여행의 측면에서 인생을 구조화한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등의 표현은 인생을 여행의 측면에서 사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인생과 여행에 관한 도식은 동일한 구조 관계에 놓인다. 골격의 형태로 구조화된 지식을 도식(schema)이라 하며, 이 도식을 채우고 있는 요소를 구실(slot)이라 한다. 따라서 여행이라는 도식에는 출발지점, 경로, 장애 등의 여행자를 위한 구실이 있다.⁶⁾ 이처럼 은유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은유를 개념은유라 한다. 레이코프와 존슨⁷⁾은 개념은유를

6) 레이코프·터너, 이기우·양병호 역, 『시와 인지-시적 은유의 현장 안내』, 한국문화사, 1996, 87~89면 참조.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구조적 은유,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가 그것이다.

구조적 은유는 ‘인생은 여행이다’와 같이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사상되어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구조도식을 말한다. 지향적 은유는 은유적 개념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하는 은유를 일컫는다. 이러한 은유의 대부분은 위-아래, 안밖, 앞뒤, 접촉-분리, 깊음-얕음,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분이 들떠있다’, ‘사기가 올랐다.’가 그것인데 이러한 은유적 지향성은 자의적(arbitrary)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문화적 경험에 근간한다. 가령 어떤 문화에서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인 것인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미래가 우리 뒤에 있기도 하다.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사건, 활동, 감정, 생각 등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물체나 물질을 통해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존재론적 은유는 비물질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실체와 물질 은유(entity and substance metaphor), 그리고 지역, 시야, 사건, 행위, 상태 등을 하나의 용기로 인지하는 용기 은유(container metaphor)로 구분된다. ‘그녀와 사랑이 깨졌다.’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물체로 인지한 실체와 물질 은유이다. 또한 ‘그녀가 나의 시야 속으로 들어 왔다.’는 표현은 시야를 하나의 용기(그릇)로 인지하여 사상한 용기 은유이다.⁸⁾ 이처럼 존재론적 은유는 비물질적 체험을 물질로 상정하게 하면서 은유 구조가 드러나지 않을 때, 명확하게 운곽을 잡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앞서 제시한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이성선의 시에 원용하여 시적 자아가 세계 내에서 인지한 공간을 규명하고, 그 의미 구조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시적 자아와 세계 사이에 대립하는 은유 체계를 상정하여 그것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7) 레이코프·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삶의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26~71면 참조.

8)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6, 47면.

2. 세계에 대한 한계 인식과 이상 지향의 인지체계

이성선 시에서 존재에 대한 경험은 자연적 질서와 자연물과의 합일을 통해 확장된다. 현실 공간에서 존재의 의미는 수직적 기호를 통해 지상에서 천상으로 상승을 시도한다. 그의 시에서 시적 자아는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에서 드러나는 자연적 매개물을 통해 시적 자아의 내면을 투사해 볼 수 있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는 반복적이며, 점층적인 구조로 전개된다. 먼저 1행~4행은 시적 자아가 처해 있는 현실 공간이다. 5행은 시적 자아의 대응이며, 6~7행은 ‘지상’과 ‘천상’ 사이에 놓인 시적 자아의 방황 단계이다. 8행은 다시 천상을 지향하는 염원의 단계이며, 9행은 시적 자아의 현실적 절망에 대한 회상 단계이다. 10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적 자아의 대응이다. 11~14행은 존재를 깨닫고 다시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한밤 짐승이 되어 울까
눈물 가득 꽃이 되어 울까
광야에 웅크려 하늘을 본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
마음은 하늘에 살아야지
이 가지 저 가지를 헤매며
바람으로 울어도
영혼은 저 하늘에 별로 피어야지
절망으로 울던 마음 그 가난도
천연한 아픔으로 천상에 빛나야지
광야에 웅크려 다시 하늘을 본다
마음 잎새에 빛나는 별빛이어
눈물 가득 꽃이 되어 울까
한 마리 짐승이 되어 울까

—「몸은 지상에 묶여도」 전문

이 작품에서 시적 자아의 현실 인식은 존재의 비극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시적 자아의 존재는 절망적인 것이며, 지상에 위치한 것이다. 이에 시적 자아는 이상적 지향을 향해 상승을 추구한다. 이러한 이상은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지상으로 회귀하게 되고, 시적 자아는 이를 인지하고 다시 현실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이 시는 이 같은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이상적 존재로의 지향과 현실적 존재로의 회귀 구도는 이 시를 이루는 주요 근간이다.

1행에서 시적 자아는 ‘한밤 짐승이 되어 울까’라고 표현한다.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ㄱ ㄱ’의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자아는 울음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유보하고 있다. 이것은 비극적 인식에서 시작한 시적 자아의 존재에 관한 물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존재의 불확실성을 인지한 시적 자아는 ‘한밤의 짐승’으로 나타난다. 시적 자아는 우는 행위를 한밤의 짐승이 우는 행위로 표출한다.

이것은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동물이다’는 인지 행위를 나타낸다. 동물은 우리의 관습적 은유에서 사람의 감정을 대신하며, 동물이 더 근원적 존재를 드러낼 때 짐승으로 표현된다. 벌레와 짐승은 인간 존재를 더욱 부각시킨 존재이다. 인간 내 존재에 대한 심리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 것이 벌레와 짐승으로 표현된다. 가령 김종길은 성탄제라는 시에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 표현한다. 이때 어린 짐승은 연약한 존재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성선 시에서 짐승은 이러한 존재에 앞에 한밤 명사가 덧붙으면서 심오한 존재로 해석된다. 즉 시적 자아의 공간은 어두운 지상에서의 근원적 물음에 관한 공간이다.

2행에서 역시 ‘-ㄱ ㄱ’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시적 자아의 물음에 관한 유보적 표현을 지속한다. 이때의 꽃은 그러나 ‘한밤 짐승’과는 달리 상승 지향적이다. 꽃은 생명을 지니며, 분산하려는 빛의 속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눈물 가득 꽃이 되어 울까”에서 꽃은 시적 자아를 의인화하여 눈물로 시적 자아의 눈물로 인지하게 하면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3행에서 시적 자이는 광야에 웅크려 ‘하늘을 본다’라고 표현한다. ‘보다’는 시야를 나타내며, 이때 우리는 시야를 하나의 그릇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야는 그릇’이라는 은유적 개념이 생겨난다. 우리는 물리적 존재이며 우리의 피부표면으로 인해 안과 밖이 경계 지어진다. 또한 그 피부표면은 세계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고, 그 세계의 다른 부분을 우리는 밖에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

우리들 각각은 경계 짓는 표면과 안-밖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밖 지향성을 표면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다른 물리적 대상에 투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상도 역시 그릇으로 간주한다.⁹⁾ 따라서 ‘하늘’은 그릇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이때 하늘의 안에 놓인 것이 지상에 관한 것이며, ‘안’의 의미는 각각의 시어를 통해 구조화 된다.

“광야에 웅크려 하늘을 본다/몸은 지상에 묶여도/마음은 하늘에 살아야지”는 ‘높은 것은 긍정적이고 낮은 것은 부정적이다’라는 기본 개념 은유가 기저에 있다. 즉 상하도식에 의한 인지를 통해 광야와 지상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하늘을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상승을 지향한다.

1행의 ‘한밤’은 깊은 밤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이때 ‘깊은’이 안으로 향하는 공간적 지향성을 이룬다. 3행의 ‘웅크려’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4행에 이르러 ‘지상’은 ‘한밤’, ‘깊은’, ‘웅크려’등과 의미 계열을 형성하면서 시적 자아가 처한 분열적 현실에 근접하게 한다. ‘지상’이 그릇의 ‘안’을 포괄한다면 ‘한밤’, ‘깊은’, ‘가득’, ‘웅크려’ 등은 지상의 공간을 이루는 것들이다. 시적 자아가 세계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것은 5행에서 밝혀진다. ‘마음은 하늘에 살아야지’에서 ‘마음’은 8행의 ‘영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생은 구속이다’라는 은유를 통하여 풀이할 수 있다.

인생은 신체의 구속이라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인생을 사는 사람의 영혼은 은유적으로 죄수이다. 여기서 육체화 되는 것은 은유적으로 영혼을

9) 레이코프·존슨, 앞의 책, 66면.

구속하는 사슬 내지는 그 밖의 도구이다. 그리하여 인생은 몸속에 영혼을 가둬 놓는 것이며,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 말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마음이 하늘에 사는 행위는 '지상에 묶인' 물리적 투옥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할 수 있다.

6~7행은 지상에서 '천상'을 지향하는 시적 자아가 현실에서 방황하는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다. 2행에서 하늘을 보는 행위는 상승의 도식을 보여주었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 마음은 하늘에 살아야지" 역시 상승의 도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가지 저 가지를 해매/바람으로 울어도"에서는 수평 이동의 양상을 지닌다. 이러한 수평 이동의 도식을 통해 시적 자아의 천상으로 향한 의지가 잠시 방황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영혼은 저 하늘에 별로 피어야지"라고 표현하면서 상승 도식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기본 개념 은유가 기저에 있다. 인생은 '가지', '바람'으로 사상되며, 여행은 '해매며', '울어도'로 각각 사상된다. 이는 인생의 경로에 장애가 있음을 함축한다. 즉 지상→가지 상태→천상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은 곧 시적 자아가 내면 정서의 근원을 찾아 방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가지 상태의 시간, 즉 시적 자아가 "이 가지 저 가지를 해매"며 방황하는 공간은 시적 자아가 존재를 탐구해가는 과정 중의 방황과 고민이다.

이때 시적 자아의 방황은 9행에서 나타나는 '질망으로 울던 마음'과 '그 가난'이다. 시적 자아의 번민과 내면의 갈등이 지상에 정착하고 있음이 여기에서 밝혀진다. 1행~9행에 걸쳐 표현된 내용에는 지상에서의 현실 인식과 이상적인 천상 공간이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대립적 관계는 지향성을 띄게 되며, 이는 시적 자아의 갈망을 반증한다.

지상, 짐승의 이미지는 다른 시편에서 '벌레'로 나타나기도 한다.

10) 레이코프·터너, 앞의 책, 37면.

사람들은 모두
벌레 속으로 숨어들어가
벌레가 되었구나.
벌레 세상 벌레 천하.

-「벌레세상」 부분

거지같은 환상 같은
밝아도 밝히지 않는 세상
상한 한 마리 벌레로 내가 간다.

-「고요를 열면」 부분

이성선의 시는 자아와 자아가 추구하는 세계와의 거리가 멀 때, 시적 자아의 공간을 지상으로 표출한다. 인용된 시는 지상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벌레세상」에서는 시적 자아의 벌레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형상화 되어있다. 즉 벌레는 사람과 사상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부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고요를 열면」에서도 역시 시적 자아의 공간을 불합리한 공간으로 인지한다. 시적 자아는 시적 자아가 처해 있는 공간을 “거지같은 환상 같은” 공간이며, “밝아도 밝히지 않는 세상”으로 인지한다. 이는 세계가 부조리한 것이며, 시적 자아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적 자아는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상한 한 마리 벌레”로 인지한다. 그것은 세계의 상실이며, 상실된 세계에서의 자아의 인식이다. 이때 자아는 ‘벌레’로 은유되며, 자아는 벌레를 통해 세계를 분열된 것으로 인식한다.

시적 자아의 현실은 자연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의 시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또한 자연 상징을 통해 극복을 시도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극복은 시에서 수직을 지향하며 역시 자연을 통해 나타난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에서 상승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가 ‘꽃’, ‘하늘’, ‘별’이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편에서도 이러한 이미지가 재현된다.

허공으로 꽃이 붉게
몸을 벌리고 피어 있다.

—「별 아래 자는 시인」 부분

가름한 목을 하늘로 빼올리고
수줍어 웃는 마타리꽃

—「마타리꽃」 부분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별 하나」 부분

「별 아래 자는 시인」과 「마타리꽃」에서 꽃은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존재이다. ‘허공으로 몸을 벌리고’, ‘목을 하늘로 빼올리고’에서 신체화된 상상력에 기인한 꽃의 형상이 이상 공간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적 자아는 꽃이 향하는 곳(천상)과 꽃이 위치한 곳(지상)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한다. ‘몸을 벌리고’ 나아가려는 것과, ‘목을 하늘로 빼올리고’가 그것이다. 이는 시적 자아가 하늘과 지상의 심적 거리를 밀착시켜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고자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랑하는 별 하나」는 별을 절대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그것은 “외로워 쳐다보면/눈마주쳐 마음 비워주는” 존재로 관용적인 대상이다. 시적 자아는 별로 은유화된 존재를 지향하면서 상승의 욕구를 드러낸다. 이처럼 이성선의 시는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지상의 현실에서 이상적인 공간, 즉 천상에 근접하여 화해에 도달한다.

3. 현실적 존재로의 회귀와 화해의 인지체계

「몸은 지상에 묶여도」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시적 자아가 지상으로 표상된 공간에서 갈등하다 천상을 지향하는 구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시적 자아가 처해 있는 현실이 불합리한 것이며 세계와 불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아의 소외, 세계인식의 혼란, 허무의 추구 등에 대한 위기의식은 역설적으로 현대사회가 상실한 신화적 원형, 자아와 세계가 합일된 상태에 대한 욕망의 표출이다.

자아와 세계의 합일 관계는 주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주체의 인식과정을 통하여 주관화 된다. 주체는 세계를 비추고 있는 개성적인 ‘거울인 샘이다. 그러나 거울의 빛은 포섭된 세계의 사건과 사물을 명징하게 비춰주지 않는다. 세계는 불명확하고 불편하고 비결정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를 시인은 시적 상상력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재구성 하는 것이다. 시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주체와 자아간의 동일성¹¹⁾의 정립을 위해서 실천적인 입장에 선다.¹²⁾ 따라서 천상의 이미지는 시적 자아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정시를 자아와 세계의 일치에 대한 욕망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성선의 시는 자아의 상실과 회복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여정은 불완전한 존재로 세계에 던져진 인간의 숙명과 그 숙명에 대해 분투하고 극복하는 순환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자아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순차적 여정은 11행 “광야에 웅크려 다시

11) 동일성은 시적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시적 자아가 세계와의 거리가 멀수록 시적 자아는 세계와 융합하려 하거나 자아를 세계 내 존재로 인식하려 하는데 이때 자아와 세계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과정을 동일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양병호, 「거울과 등불의 시학」, 『인문논총 22권』, 1992, 247쪽.

하늘을 본다"에 이르러 현실적 존재로 회귀된다. 3행에서 시적 자아가 추구한 세계는 자아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던 세계였다. 이때 시적 자아는 현실 세계의 괴리와 존재의 불확실함만으로 단지 상승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1행에서는 '다시'라는 부사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자아가 자신의 내면을 다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시적 자아는 지상으로 다시 환원하여 지상의 것들, 즉 시적 자아의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성을 재탐색한다. 여기에서 시적 자아는 현실로 회귀하여 내적 성숙의 시간을 구축한다.

이 시에서 시적 구조를 연상해 보면 '이상적 존재로의 떠남'과 '존재의 방황', '현실적 존재로의 회귀'이다. 방황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다시'는 존재 인식의 순환 과정에서 귀결점이 된다. 이는 시적 자아의 시에 대한 인지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 시에는 '인생은 여행이다'와 '순환은 인생이다'라는 기본 개념 은유가 기저에 있다.

시적 자아는 현실에 처한 존재적 난관에 봉착하여 상승을 지향한다. 이는 다시 현실의 방황을 통해 자아의 존재를 재고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존재로의 회귀가 궁극에는 현실 인식에 다다르게 한다.

현실 인식에 다다른 시의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와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11행에서는 1~3행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 시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행의 구조가 도치되어 있다.

- ①한밤 짐승이 되어 울까
- ②눈물 가득 꽃이 되어 울까
- ③광야에 웅크려 하늘을 본다
- (중략)
- ③광야에 웅크려 다시 하늘을 본다
- ①마음 앞세에 빛나는 별빛이어
- ②눈물 가득 꽃이 되어 울까
- ①한 마리 짐승이 되어 울까

상승을 지향하는 시의 초반부에서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각각 ①→②→③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미지가 이동하였다. 그러나 시의 후반부에서는 ③→㉠→②→①로 도치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구에는 약간의 변형이 있다. 앞서 고찰하였던 바, ‘광야에 웅크려 다시 하늘을 본다’에서는 ‘다시’가 첨가됨으로써 시적 자아의 현실적 존재로의 회귀가 가능하였다. ③의 이어지는 행에는 ㉠“마음 앞세에 빛나는 별빛이어”가 첨가되었다. ‘마음의 앞세에 빛나는 별빛’은 시적 자아가 방황하던 ‘이 가지 저 가지’에 잎이 돋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빛나는 별빛’과 의미작용을 이루어 시적 자아가 현실과 화해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치와 시어의 치환은 정서의 집중화를 통해 표현을 극대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서표현의 집중은 마지막 행에 이르러 귀결된다. ①에서 한밤 짐승은 마지막 행에서 한 마리 짐승으로 치환된다. ①에서의 ‘한밤 짐승’은 뚜렷한 존재의 향방을 찾을 수 없는 세계 내의 짐승이다. 반면 마지막 행의 한 마리 짐승은 시적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고 세계와 화합한 짐승이다. 시적 자아는 한밤 짐승 → 한 마리 짐승으로 동일성을 회복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적 자아는 마지막 행에 표현된 한 마리의 짐승으로 존재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 시적 자아의 유보적 표현 ‘ㄹ 까’는 확실하지 않은 인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적 자아가 지속적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유보적 표현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는 지상 - 천상 - 지상으로 향하는 인지체계를 구축한다. 시의 도입부, 즉 지상에서 천상을 지향하는 부분에서 시적 자아는 현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이상을 추구한다. 다시 천상에서 지상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시적 자아는 시적 자아의 위치를 다시 지상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늘을 본다”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표현된 부사 ‘다시’는 시적 자아가 놓인 현실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12행에 이어지는 “마음의 앞세에 빛나는 별빛이어”는 시적 자아가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 존재로 회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밤 짐승을 한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적 자아 스스로를 하나의 뚜렷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두 행에 종결어미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인간 존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물음일 것이며, 그 물음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환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에서는 시적 자아의 공간 인지가 지상→천상→지상(현실 존재 인식)이었다. 이는 지상의 시적 자아가 천상을 지향하다 다시 지상으로 회귀하여 지상의 존재를 깨닫고 세계를 인지한 것이다. 이 시에서는 천상의 이미지 별, 하늘 등이 고정되어 있었다. 다만 이때 천상과 지상의 거리를 좁힌 것은 시적 자아의 심리 이동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될 시에서는 천상의 심상이 지상으로 시적 거리를 이동한다.

나무에 걸린 구름과 햇살
 밤에 빛나는 성진의 무리들이
 내 핏줄을 타고 내려와
 숨결을 이루네

-「자궁 안에서」 부분

나무들의 숲으로 가서
 짐승과 별과 달과 바람이 얼굴 비비며
 속삭이는 나라의 소리를 듣고 싶네

-「귀」 부분

「자궁 안에서」는 구름, 햇살, 성진의 무리 등이 시적 자아가 위치한 지상으로 하강한다. ‘핏줄을 타고’, ‘숨결을 이룬’다고 한 것은 시적 자아의 내면으로 침투한 세계와의 화해이다. 밤은 시적 자아가 위치해있는 현실이다. 밤을 한정짓는 것은 “밤에 빛나는 성진의 무리들”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밤은 덮개이다.”라는 용기도식이 상정된다. 성진의 무리들이 펼쳐지는 공간은 우주로 접철된 공간이다. 따라서 우주는 하나의 덮개이자 용기로

사상된다.

이 시의 제목 ‘자궁 안에서’에서 보여 지듯, 이때의 우주는 자궁이 된다. 시적 자아는 우주라는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주를 자궁으로 인지한 것이다. 시적 자아는 자신을 둘러싼 유동적인 시간을 제한적으로 한정한다. 우주의 한계를 자궁으로 인지한 시적 자아는 우주 안의 공간이 자궁 안의 공간과 유사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시적 자아는 우주 안의 공간을 정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세계 내의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시간의 흐름은 시적 자아의 삶의 흐름과 일치한다. 시적 자아는 삶을 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때문에 자연적 시간의 흐름이라는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시적 자아의 심리상태는 현실공간에서 세계와의 합일에 도달하려 노력한다.

문학적 시간은 ‘인간적 시간’, 즉 경험의 막연한 배경의 일부가 되고 인간의 생활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의 의식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시간의미는 경험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또는 이런 경험의 총화인 인간생애의 맥락 속에서만 터득할 수가 있다.¹³⁾ 따라서 인간적 시간과 의식은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 이성선 시에서 시간은 고뇌를 체득하며 시에 대한 예술적 정신으로 살아갔던 시인의 세계 인식을 보여준다. 그에게 시간은 현실 속에서 존재의 위치를 규정해 주는 본질적인 인식구조에 다름 아니다.

시는 순간적 서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서정시의 본질적 시제는 현재다. 그러나 서정시는 하나의 의의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또한 긴밀한 연관의 연속적 순간들을 환기한다.¹⁴⁾ 이성선 시에서 세계에 대한

13) 한스 마이어호프, 김준오 역, 『문학과 시간 현상학』, 삼영사, 1979, 32면.

14) 김준오, 『시론』, 삼지사, 2004, 44면.

“서정시의 현재는 고립된 현재가 아니다. 시인의 의식상에 있어서 현재의 순간에 많은 과거들, 체험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해 있는 순간이거나, 이 순간 속의 사항들이 무엇이든 이것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의의 있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연속적 순간이다.”

불안의식 역시 현재의 상태, 즉 세계 내에 주어진 존재로부터 시작한다. 이성선 시의 현실공간은 시적 자아가 놓여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공간이며, 미래에 앞서 있는 공간이다.

「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별, 달, 바람은 ‘숲’으로 내려온다. 숲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지상의 짐승과 천상의 별과 달, 바람이 얼굴을 비빈다”는 것은 현실과의 화해 의지이다. 또한 ‘속삭이는 나라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은 시적 자아가 현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다. 이성선의 시에서 시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한다. 하지만 시적 자아의 현실은 궁극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적 자아는 밤의 인과적 변화를 통해 존재를 인식한다. 아울러 그러한 변화는 내면에서 존재를 파악하는 요소로 위치한다.

4.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인용하여 「몸은 지상에 묶여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시적 자아가 세계 내에서 인지한 공간을 규명하고 의미 구조를 도출해 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에서는 하향지향적인 지상의 속성이 자연물과의 매개를 통해 시적 자아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각각 상승지향적인 하늘, 별의 속성으로 승화되었다. 시적 자아는 세계와 존재와의 불일치를 자연의 속성과 등치시켜 화해해 나갔다. 시적 자아와 존재의 불일치를 은유하는 자연은 천상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에서 분리된 이상적 대상으로만 상징되었지만 다시 지상으로 회귀함으로써 시적 자아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시적 자아와 세계와의 화합이라기보다는 시적 자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화합이라 할 수 있다.

이성선 시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서는 끊임없는 존재에 대한 탐구

였다. 이것은 시적 자아가 놓여 있는 현실 공간과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공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에 대한 존재 탐구였다. 시적 자아가 놓인 현실의 공간이 지상의 시어로 열거되었다면, 시적 자아가 지향하는 세계는 천상의 시어로 표현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이성선 시에서 표출되는 시적 자아의 인식과정을 통해 이성선 시 「몸은 지상에 묶여도」의 인지체계를 구축하였다. 세계 인식에 대한 혼란으로 이상을 지향하고, 다시 세계 내에서 존재를 깨닫는 순환 과정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으로 존재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성선은 지상과 천상, 다시 지상으로 이어지는 우주와의 동일성 추구를 통해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국문초록>

본고는 인지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몸은 지상에 묶여도」의 구조적 미학성을 조망하였다. 이는 시적 자아가 세계 내에서 인지한 공간을 규명하여 의미 구조를 도출해냄으로써 창조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에서는 하향지향적인 지상의 속성이 자연물과의 매개를 통해 시적 자아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각각 상승지향적인 하늘, 별의 속성으로 승화되었다. 시적 자아는 세계와 존재와의 불일치를 자연의 속성과 등치시켜 화해해 나갔다. 시적 자아의 존재의 불일치를 은유하는 자연은 천상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에서 분리된 이상적 대상으로만 상정되지만 다시 지상으로 회귀함으로써 시적 자아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시적 자아와 세계와의 화합이라기보다는 시적 자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화합이라 할 수 있다.

이성선 시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서는 끊임없는 존재에 대한 탐구이다. 이것은 시적 자아가 놓여 있는 현실 공간과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공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에 대한 존재 탐구이다. 시적

자아가 놓인 현실의 공간이 지상의 시어로 열거되었다면, 시적 자아가 지향하는 세계는 천상의 시어로 표현되었다.

주제어: 이성선, 「몸은 지상에 묶여도」, 은유, 인지 시학, 사상, 용기
은유

<참고 문헌>

1. 자료

- 김준오, 『시론』, 삼지사, 2004.
- 레이코프 · 존슨, 노양진 · 나익주 역, 『삶의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 레이코프, 터너, 이기우 · 양병호 역, 『시와 인지-시적 은유의 현장 안내』,
한국문화사, 1996.
-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지학적 이해』, 태학사, 2006,
- 이성선, 『이성선 시전집』, 시와 시학사, 2005.
- 이종열,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2004.
- 이희중 · 최동호, 『이성선 전집 1』, 서정시학, 2011.
- , 『이성선 전집 2』, 서정시학, 2011.
- 피터스톡웰, 이정화 · 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 한스 마이어호프, 김준오 역, 『문학과 시간 현상학』, 삼영사, 1979.

2. 논저

- 김재홍, 「가치의 다원화와 열림 지향성」, 『소설문학』, 1987.12.
- 박남희, 「노장적 사유의 두 가지 모습 : 천상병과 이성선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7호, 한국시학회, 2002.
- 양병호, 「거울과 등불의 시학」, 『인문논총 22권』, 1992.
- 이강하, 『만해 한용운 시의 은유구조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5.
- 이광호, 「투영의 시학」, 『현대시학』, 1990. 4.
- 이승철, 「정지용의 〈바다2〉에 대한 인지지학적 분석」, 국어문학48집,
2010.
- 이승훈, 「70년대의 한국시」, 『현대문학』, 1989. 3.
- 전도현, 「자연친화적 상상력과 구도의 정신」, 『시와사람』, 시와사람사,
2000. 봄.

〈Abstract〉

A Study on Lee Sung Sun's 「Though the Body is Tied up in the Earth」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Poetics

Park, Jihak

This study applies the methodology of cognitive poetics to examine the structural aesthetics of 「Though the Body is Tied up in the Earth」. This is intended to reach creative understanding by figuring out the space perceived by poetic ego within the world and draw a meaningful structure.

In 「Though the Body is Tied up in the Earth」, the downward earthly properties are mediated with natural objects and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poetic ego to be sublimated to the upward sky and properties of stars each. The poetic ego makes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world and the being correspond to the natural properties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Though nature that is the metaphor of the inconsistency of the being of the poetic ego is simply postulated as the ideal object separated from reality through the heavenly image, it returns to the earth and becomes a chance for the poetic ego to realize its own being. This is not the union between the poetic ego and the world but rather a union of recognition that the poetic ego sees the world with.

The emotion that flows consistently along the entire poem of Lee Sung Sun's is the constant exploration of a being. It is the exploration of a being over conflicts resulted from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actual space where

the poetic ego exists and the ideal space to be pursued. If the actual space where the poetic ego exists is described with the earthly poetic words, the world pursued by the poetic ego is expressed with the heavenly poetic words.

【Key words】 : Lee Sung Sun, 「Though the Body is Tied up in the Earth」, metaphor, cognitive poetics, mapping, container metaphor

박지학

전주교육대학교 강사

(560-757)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5rot2@paran.com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